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출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상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아름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자기' 없다면 상대와 부딪침도 없어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한다면 작년, 올해, 내년도 없겠지만, 질서를 지키고 살아나기려면 작년, 올해, 내년이 있어야겠죠. 그런 반면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 미래는 훤히 내다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 몸이라는 싸대문에 자기 중심을 모르고, 즉 중자라는 뜻입니다. 항상 자기 색이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을 옮기지 못하고 천년 만년 산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더 많고,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겹쳐서 사는 게 뭔가 하고 허망한 생각이 들고, 그런 예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살이를 가만히 따지고 본다면 과거·현재·미래가 없이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살고 죽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오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오분향이 오계의 근본, 공부하는 이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않고 아침, 저녁 스님들만 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해마다 수계할 때 받는 오계가 거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배우기 이전에 지혜로운 경중경중 점철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행동을 한다고 하기 이전에 아버지의 행동을 하며, 어머니의 행동을 하며 또는 아들의 행동을 하며, 형의 행동을 하며, 아우의 행동을 하며, 사위의 행동을 하며, 친구의 행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렇듯이 부처님 법은 매달아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이렇다, 누구를 만나면 저렇다하고 말씀해 놓으신 게 아니라 자유스럽게 만나고 말하고, 듣고 보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유스럽죠? 그런 데 공을 심어서 색이 낫는 데도 공 색은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더라 이겁니다. 자기만이 자기인 줄 안다는 거죠. 엄연히 자기 중심이 있어서 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몸씨가 없어도 공색이 없고 공색이 없어도 공색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벽을 치면 봉장이 울리듯이 말합니다.

생사없는 영원한 삶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하는 게 아니라 동글러서 전체, 이것저것, 소소한 거든지 다 거기 포함해서 들어가게끔 말씀을 하죠. 팔정도나 육바라밀이니, 사성제니, 오계니 모두 거기 포함해서 들어가는 이치를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하다보면 늘어죽을 때까지 그 길을 걷지 못할테니까요. 그래서 풀은 강하면서 유유하듯, 힘이 없어서 유유한 게 아니죠? 우리가 시대에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시대가 우리를 쫓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단,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서 시대는 바꾸어 줄 수 있고 좋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우리 마음이 주인이죠. 지구의 근본과 우리의 근본, 우주의 근본이 들어 있습니다. 과거·미래·현재를 한데 포함한 것을 삼천이라고 합니다. 삼심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한 개체에 있어서 삼심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본다면 삼천이죠. 삼세간이라고 하는 데 그 삼세간이 어떻게 돼서 일심으로 돌아가느냐는 얘깁니다. 우리 사는 지금, 현

실에 돌아가고 있는 자체가 바로 삼세간에서 돌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현실에 사는 이 자체에 하세계·중세계·상세계가 엄연히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계에, 삼천하면 그냥 하나가 됩니다. 한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한마음과 외부의 한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주간 더불어 대천세계와 더불어 같이 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천하면, 삼천은 벌써 돌아가고 대천에 포함이 된 겁니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삼천하면 삼천은 벌써 금방 말을 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에서 현실로, 그냥 대천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이 천심이요, 천심이 일심이라.

내가 아는 마음이 천심으로 돌아간다. 남이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마음이 전체가 다 같이 돌아가니 이전 무슨 까닭인가? 여러분이 죽어 보지 않았습니까? 죽은 세상을 모르는 거지, 그리고 또 살아 있으면서 그 살아가는 업식에 의해서 즉, 남의 다리 굽어가면서 살았거든요. 허허허... 그런 면이 많죠. 남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한다,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가야한다고 하면서 흥들리고,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나도 이쪽으로 가야 된다. 가야한다는 말도 없이 그냥 천연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이 없이 그냥 따라가면서 남의 다리 굽어주는 거죠. 자기 다리를 시원하게 굽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분향을 얘기 할 때에 누구든지 힘이 없이 해라하는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주상이다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것이 무주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이 없이 주되 아주 똑 부러지게 해놓는 것이 바로 무주상이자 힘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똑똑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단 얘깁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남의 탓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탓으로 생각하라. 내가 잘못했는지 못했는지, 잘한 것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자기 탓으로 생각하라.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지, 내가 없다면 어떻게 부딪칠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허공에다가 돌을 던진다고 소리나는 거 못 보셨죠? 돌을 마주 치니까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있는 탓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부딪치고, 상대로 인해서 누가 되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모든 것을 누가 되게 하지 말고, 은사에 누가 되게 하지 말고, 자기에 게도 누가 되게 해서 안되고, 불가에 누가 되게 해서 안되고 그러면서 모든 걸, 안과 바깥을 다 내려, 모으는 작업을 해라. '정' 에다 놓는 작업을 해라. 이게 계 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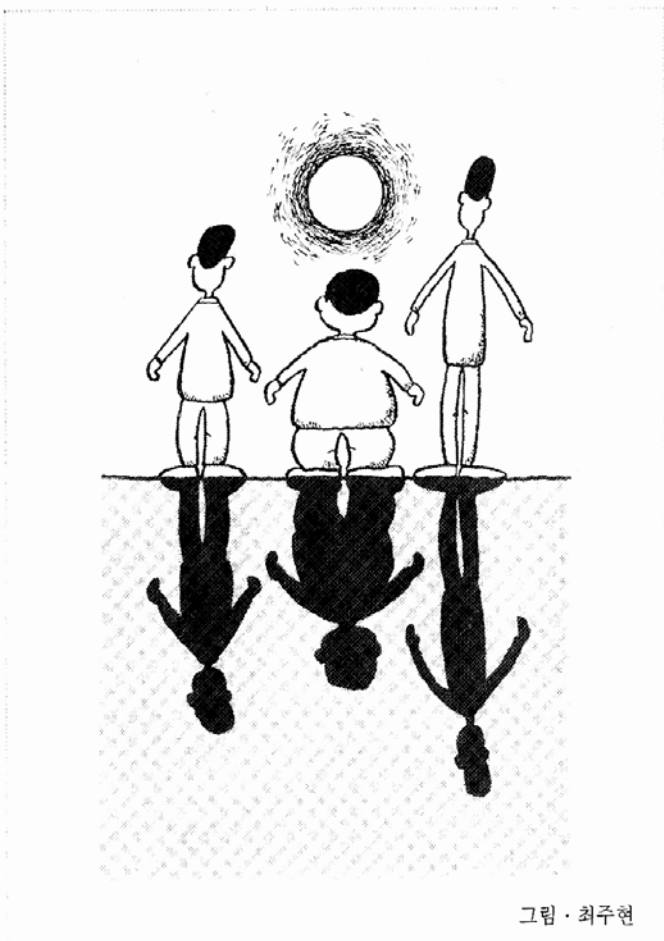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심봉박혀 흔들리지 않아야 지혜 생겨 줄지도 두드러지지도 않는 마음 도리

그리고 정향은 한데 모아서 익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내 주장자가 딱 심봉이 박혀 있으니까 어딜 가도 흔들리지 않게 됐을 때 그걸 '정' 이라고 합니다. 정향, 즉 말하자면 완전히 심봉이 박혀서 흔들리지 않을 때 살림살이가 여여하게 들리고 내진다 이겁니다. 여여하게 들이고 내는 동시에 그게 여여하게 돌아가게 되자 지혜가 생긴단 말입니다.

지혜가 생기면 지혜로써 여여하게 하니까 그때는 자기 말이 법이 돼서 그대로 들이고 나는 게 두드러지지 않고, 또는 꺼내도 줄지 않게 됩니다. 정향에서 완전히 들이고 내는 데 손색이 없다면 그때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해향' 이라고 그랬습니다. '해향' 이거는 제가 공부할 때 오면서 느끼고 배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꼭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분향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에, '아하! 이런 거로구나'

내탓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했죠.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구나' 하구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깐 그냥 전부 부처더군요. 전부 주인 공입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혜로워지면 그때는 들어도 두드러지지

않아요. 영을 천 개 만 개를 넣어도 두드러짐이 없지요. 허공에 꼭 찬 마음을 다 꺼낸다고 줄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전 평등 공법에 의해서 나오는 법 아닌 법입니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아요. 해향이 있습니다. 그 해향이 완성되면, 꺼내도 줄지 않고 또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하게끔 완성된다면 마음이 다 익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서부터 해탈향이 나옵니다. 그때 뭐냐 하면, 바깥에 다니면서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뭐 하든 못해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더라도 전체, 그저 보는 대로 무명을 거둬 주게끔 돼 있습니다. 하나 하나 거둬주는 게 아니라 지혜로써, 무명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진화를 해라, 이렇게 거둬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소하고 다니는 것을 중학교로 올리듯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걸 참담에다 올리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차레차레 올라가게끔 그냥 무명을 전부 벗겨 주는 것입니다. 묶어진 마음을 다 해쳐주는 것입니다. 무명에 얽매어서 헤어지지 못하는 생명들을 다 그냥 풀어주는 거죠. 그것을 풀어주게 되면 자기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점프하게 되거든요. 진화를 해서 형성되거든

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모습을 가지고 몇 천년 가도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말로는 아니 되는 얘깁니다.

그래서 '해탈향' 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같이 무명을, 묶인 무명을 풀어준다. 모든 것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고 풀어준다. 이렇게요. '해탈지견향' 하면 미생물에서부터 모든 게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내 마음 아닌 게 없고, 내 아픔 아닌 게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도량 아님이 없어서 모두 하나가 돼서 일체 부처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부처 생각을 내면 법신 움직거리면 보현신 삼심 합하면 한아름

들 아니고 일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전부 하나로 묶여져서 퍼지고, 펼쳐지고 묶어지고 하나로 되고, 수만으로도 되고, 이렇게 작용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이 구경도리천에 이르러서 자유스럽게 과거 현재 미래는 물론이거니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한 번에 한 생각에, 참나에 돌아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같이 응할 수 있고, 통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또 같이 할 수 있고, 내가 되지 않는 게 없고, 내 몸 아니 되는 게 없고, 지장 아촉 아미타·미륵 또는 칠성 지장 관세음 지신·용신 모든 것이 내가 아니 됨이 없을 때 '해탈지견향'입니다.

그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요. 6·25 때 봤는데 말합니다. 접시 비행기라고 말 들어 보셨죠? 많이 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그게 접시 모양뿐만 아니라 타원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원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죠. 길쭉하게 고무마치처럼 생긴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보셨습니까? 이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말합니다. 하나가 됐는데, 하나에서 줄을 지어서 나오요. 그때 생각을 하기에, '아하! 이런 마음의 자유로구나' 모습을 이걸로도 하고 저걸로도 할 수 있고, 부처님께서 천백억화신으로 화해서 나오게 되면, 천차만별로 모습이 돼서 응신으로 돼 주느니라, 하는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한 생각에 보살들을 헤아릴 수 없이 낳아서 원하는 중생들에게 모두 하나로 응신이 되어 주십니다. 또, 법당에 부처님을 모셔 놓으면 한쪽에는 문수 보살, 한쪽에는 보현 보살 이렇게 모셔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이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했으면 움직거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현입니다. 그러니까 삼심이 바로 한아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할 때가 있고, 생각을 냈다 하면 움직거리게 됩니다. 지기 있는 거 가져와지, 한다면 벌써 일어나서 움직거리게 되니까 한 생을 살아가면서 점프하게 되거든요. 진화를 해서 형성되거든

배울 게 없어요. 따로 따로 배우다간 뭐, 이 생이 다 가세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왼팔은 문수요, 부처님의 바른 팔은 보현이니까." 이렇게 말을 해 놓은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의 팔을 생각해 보세요. 내 왼팔은 문수이고, 바른 팔은 보현이다 이렇게요. 왼팔은 바른팔을 도와 주거든요. 바른팔이 혼자 질 때는 혼자 그냥 독단으로 해 버려요. 그러나 어디가 좀 무겁다, 이러면 왼팔이 같이 도와 주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한 개체에 다복하게 다 들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통이 속에 영계성 인과성 업보성 세균성·유전성. 이 다섯 가지가 들어있는데,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많으나 적으나 차이일 뿐이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할 것을,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아, 지금 모두 알아들으려면 컴퓨터에 입력했다고 하면 알 거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에 입력한 것처럼 오싹통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컴퓨터니까요. 그래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입력을 다시 해라 이겁니다. 굴러서 그것도 입력을 해라 이거죠. 그대로 입력을 하면 그대로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굴러서 거기다 입력을 해라, 하는 겁니다. '현 물이 나온 것도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새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그냥 바꾸어서 넣어라 이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일거수일투족 살아나가는 데 말합니다.

해탈지견향의 묘법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데서 모든 게 다 다가고 안에서 일어나고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이루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남이 해 주는 게 없어요. 남이 사니 그거 대치를 합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아무리 친절하다고 그러더라도 통누는 거 대신 뉘 줄 수도 없고, 먹는 거 대신 먹여줄 수 없고, 죽는 것도 그렇고, 아픈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대신 해 줄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뜻하고 자기가 괴롭고 자기가 한 것이 그냥 거기서 또 나오는구나, 이러는 거죠. 나 공부시키느라고 참 잘 나온다. 그리고선 그냥 또 거기다가 맡기는 거죠.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어, 그저 내일이라는 생각이 없어, 너를 믿으니까, 네가 끌고 다니니까, 네가 형성 시켰으니까, 하고 그 모든 걸 거기다가 입력해서 믿고 놓는 거죠. 바꾸어서 대치를 해서 놔야만이 바뀌어져서 나오지 그냥 놓으면, 너 할 대로해라 하면 아무 것도 입력되는 게 없어요. 너 할 대로해라 그것만 입력이 되는 거죠.

번뇌가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는데 번뇌 아닌 것이 하나나 있습니까? 생각하는 거,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도 전부 번뇌입니다. 번뇌라고 이름을 했기 때문에 번뇌이지 그것이 도를 이루어 나가는 도법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알고 한다면 여하게 그냥 가지런히 살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 생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중세계에서 한번 이런 공부를 해서 중지부를 찍는다면 그냥 세세생생입니다. 그래서 '한 생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한 생 좀 고달픈 어머니' 더불어 같이 고달프지 여

20면으로 계속

가짜로 인목을 부딪고 고통은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